



濁流清論

제30호 2014년 3월 20일(목)

발행인 : 김호섭 / 편집 : 편집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이메일 (juok@ajou.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특성화 사업과 대학사회	1
특집: 정부의 대학교조 개혁 정책과 아주대학교의 대적 방안	3
특집: 신입 교원 소개	5
소통과 담론 : 상송 기의 곤대와 하강기의 잉여	15
교수들의 건강칼럼 : 질병인 우울증	17
소식	20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특성화 사업과 대학사회

사학과 김태승

2014년 봄, 신학기 시작을 즈음해서 대학가를 강타한 것은 교육부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계획이었다. **CK - II**(University for Creative Korea)로 명명된 이 계획은 “특성화”라는 이름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제고, 대학서열화 탈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가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이 지원계획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에 집중되었다.

사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이 피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임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의 법정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 이후 입학정원의 30%정도가 미충원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그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교육부는 그것을 국가재정지원 사업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래서 특성화 사업의 복잡한 수사학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의 관심은 정원감축을 포함한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에 모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정원감축을 포함한 대학구조 조정이 국가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대학이 마땅히 수행해야하는 ‘의무사항’이 되었으므로, 논의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정원감축을 진행할 것인가로 옮겨가게 되었다. 말하자면 거시적 결론을 내려놓고 그 실천방안은 알아서 마련하라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대학사회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에 동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교육부의 정책은 거시적 측면에서 무차별적 정원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였다. 각 대학이 처한 재정적, 학제편성 상황이 모두 다르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또한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비율의 정원감축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이미 대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대학들의 자율적 노력이 무의미해지게 된 것이다. 대학에 대한 사회의 ‘일방적 비난’이나 교육부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놀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 많은 대학들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나름의 실천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의 정책은 그러한 노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오히려 억압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또 교육부의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대학의 체질개선 유도’ 역시 비슷한 논점에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이 문제는 거시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대학이라면 누구나 좋은 학생을 유치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꿈꿀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Top-down 방식의 ‘체질개선 유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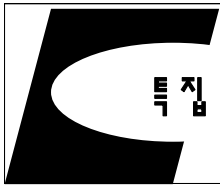
결국 평균화된 척도를 대학에 강제하게 될 것이고, 특성화사업이 선택한 Project형 사업설계는 장기적 전망 하의 성찰이 필요한 교육을 재정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사업을 위한 사업설계로 유도해가게 될 것이다. 재정지원을 얻기 위해서 대학들은 보다 더 ‘매혹적인’ 사업설계를 시도하게 될 것이고 대학의 체질개선에서 대학의 현실적 상황 보다는 심사에서의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수사학이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가게 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사립대학 중에는 운영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을 도구화하는 경향을 가진 대학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대학들은 대학이라고 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고, 그것은 이미 나타난 자료들로도 충분히 식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금번 특성화사업과 관련된 교육부의 전략은 대학운영에서 비민주적이거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대학일수록,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미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재단이 강제로 특정분야의 정원을 줄이고, 대학체제를 교육적 목적에서보다는 사익의 관점에서 변경시키는 것을, 평가과정에서 식별해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고, 그런 대학일수록 더 쉽게 교육부의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고,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대학의 변화를 장기적 전망 하에 추진하던 ‘정상대학’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원래 시행되고 있던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구상된 것이었다.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은 교육과 관련된 공개지표를 통해 역량이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재정지원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대학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수많은 평가와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얼마나 많은 교수와 직원들의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대학교육의 정상화가 모든 대학에서 같은 수준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국가정책은 보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 정책과 아주대학교의 대처 방안

기획처장 김민구

교육부는 2025년 이후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3단계 평가를 통한 구조개혁으로 극복하려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여기서는 이에 대한 의견은 차치하고,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구조개혁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아주대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까지 다음과 같이 총 16만 명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평가주기	1주기 (‘14~’16)	2주기 (‘17~’19)	3주기 (‘20~’22)
감축 목표량	4만 명	5만 명	7만 명
감축시기	‘15~’17학 년도	‘18~’20학 년도	‘21~’23학 년도

감축방안은 구조개혁 기간(14~22)을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등급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뿐 아니라,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제한, 2회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견 아주대학교가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구조개혁과 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최우수’ 등급을 몇 학교가 받을 수 있으며, 평가지표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이다. ‘최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학교 수는 대략 20개 안팎으로 보이지만 지역대학 보호정책을 감안하면 세 번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는 것은 만만치 않다. 또한 평가지표에 연구지표가 포함되겠지만, 여전히 교육환경지표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전임교원확보율은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지난해 아주대학교 전임교원확보율

(의학계열 미포함)은 61.3%였다. 이 수치는 대학교육협의회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최소요구수준인 61%를 겨우 상회한 정도이다. 반면, 대부분의 대학이 특임교원을 비정년전임교원으로 전환하거나 채용하여 경쟁대학들의 전임교원확보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주대학교도 최근 비정년전임교원 트랙을 만들어 올해 확보율은 64%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아주대학교가 매 주기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것은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구조개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아주대학교는 연간 정부지원 교육비 국고를 약 190억 원 규모로 받고 있다. 그 중 학부교육선도화사업(ACE)사업에서 약 30억 원 규모를 받고 있으며, 만약 LINC사업이 되면 60억 규모가 되며, 정부지원 사업이 약 22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다. 정부정책이 OECD 규모 수준으로 고등교육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규모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서 구조개혁을 연계할 것으로 정책발표를 함과 동시에 당장 시행되는 대학특성화사업과 LINC사업부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가산점이 없으면 사업에 선정되기 매우 어렵게 되었다. 다음에 나올 ACE 후속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조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와 구조개혁 하여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학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특성화사업을 위해 입학정원 4%를 줄이면 4년 후 매년 약 26억 원 정도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특성화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0억 원이라고 해도 이는 순수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등록금 수입 감소와 비슷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LINC사업과 ACE후속사업 등을 생각해 보면 구조개혁에 불참하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면 아주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특성화 추진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으로 전체적인 방향과 당장 시급한 4%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입학정원의 4%는 80명인데 특성화사업을 위해서는 2016학년도 입학정원을 80명의 80%인 64명 감축해야 하고, 2017학년도에 나머지 16명을 감축해야 한다. 현재 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인한 잉여학생수와 스포츠레저학과의 잉여학생수를 합하면 31명 정도 감축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 그러므로 2016학년도의 감축인원 64명 중 33명 정도를 더 감축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2017학년도에 감축할 16명의 감축계획도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아주대학교는 중·소규모 대학으로 구조개혁이 불필요 할 정도로 군살이 없는 대학이다. 전체가 35개 학과로 어떤 학과도 폐과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구조개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구조개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최근에 제기된 방향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과간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다 수평적인 교류와 연계전공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더 나가면 일부 학과들의 통합문제 혹은 융합학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겠다. 둘째는 학과정원의 최소 단위, 예를 들어 30명 정도는 정해 놓고 구조개혁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학과평가를 통한 정원조정이다. 예를 들어 학과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매우미흡’ 등급의 평가를 받은 학과의 정원을 감축하고 어느 기준선 이하면 폐과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조심스럽고 심도 있게 점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집

신임 교원 소개

경제학과 김 태 봉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에 새로 임용된 김태봉입니다. 아주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997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제/경영학사 전공으로 2004년에 졸업하였습니다. 2004년 가을학기부터는 Duke University에서 2년간의 경제학 석사과정을 거쳐서 같은 학교에서 2011년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연구의 산실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년 반 동안 거시정책연구부 소속으로 국내 거시경제의 동향 및 전망에 관련된 정책연구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경제의 다양한 현상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깊이있는 학제적 연구의 갈증을 여전히 느끼고 있던 가운데, 마침 기회를 마련해주신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시경제학 내에서 계량경제의 방법론에 입각한 실증분석을 주로 연구해 왔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향후에도 꾸준히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엄밀한 방법론을 익힌 한국의 경제학자로서 한국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병행하려 합니다. 우선, DSGE 모형에 기반한 거시모형이론을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하여 새로운 feature 들을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거시경제분야에서는 DSGE 모형의 핵심 가정인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에 대해 많은 도전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Information Friction 모형의 제시입니다. 아직까지 Information Friction 모형은 범용모형으로서의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연구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편입니다. 특히 기존 통화정책 관련 모형의 핵심은

정책결정과 민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기대에 의해서 형성되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가정이 약화되었을 때는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점에서 Information Friction은 매우 중요한 extension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학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거시경제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경제였고 또 대외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미국 학계에서 배운 모형과 실증분석 틀에 의한 결과들은 대부분 강건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한국 경제를 일반적인 틀에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 존재하지만, 이러한 한계가 오히려 기존의 거시경제 분석틀에 대한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보다 새로운 모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의 필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모형이나 추정방법론을 다양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대학교에 오면서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이겠지만, 연구를 하다보면 종종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상기시키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필연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연구를 위한 탄탄한 배경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한동안 멀리했던 교과서들을 다시 정리하며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저의 자산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주대학교라는 이름과 명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시스템 박 희 준

안녕하세요. 2014년 에너지시스템학과에 신규 임용된 박희준입니다. 우선, 아주 가족의 일원으로서 훌륭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즉, 대학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식인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적 측면에서도 연구조직으로서 다음 세대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수는 후학을 선도하는 선구자로서뿐만 아니라, 연구조직의 리더로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들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그동안의 한국과 (서울대, KIST, LG전자) 미국에서의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Intel) 다양한 교육과 연구경험이 이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세계로 도약하는 아주대학교에서 그 꿈을 펼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연구해온 태양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차세대 저전력 고성능 소자 개발을 위한 나노공학 기반의 융

합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에너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고분자물리 및 합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료 합성에서부터 고분자의 거동 예측과 같은 시뮬레이션 및 이론 계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블록공중합체의 나노구조 발현 및 분석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석사 학위 후 LG전자에서 친환경 기술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 및 국제 IEC 기술표준화 과정에 참여 하고, LG전자 내의 각 사업부와의 협력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공학자로서 제품 개발의 거시적 관점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소재 개발에 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으로 자리를 옮겨 하이브리드센터 소속으로 전자재료용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 및 (미) 듀폰과의 협력 연구를 통한 하이브리드 소재 내 열전도도 예측 법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1년 반 동안의 KIST에서의 연구 후, 2007년도 대한민국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미시건대학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의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Macromolecular Science & Engineering에서 박사과정으로서 Electrical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에서 Research assistant로서 그 동안 소재 및 물리적 현상에 집중해왔던 연구를 발전시켜,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나노공학을

바탕으로 진보된 과학적 원리를 실제소자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연구도 중점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다양한 나노공정 및 분석, 반도체물리 등을 공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변환 소자인 태양전지 개발에 매진하였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미) Intel에서 3 차 원 FinFET 기 반 의 트 랜 지 스 터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에 참여해왔습니다. FinFET 구조는 Intel의 22nm 공정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실현화되었고, 저는 Moore의 법칙을 현실화하기 위한 14nm 기반 기술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나노공학을 기반으로한 반도체 분야에서의 진보된 기술력을 배우고 또한 스스로 이끌어어나가며, 임용 후 수행 가능할 연구 및 대한민국의 과학발전을 이끌어 나갈 후학 양성에 대한 밑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던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학제간 융합 및 기존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현시대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제 연구 및 교육을 통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학과 백연정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경영학과 인사조직 전공에 새로 임용된 백연정이라고 합니다. 아주대학교의 일원이 된 지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아주대학교에서 보내게 될 시간을 곧 화려하게 피어날 봄꽃을 기다리듯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의 지면을 빌어 직접 뵙기 어려운 선임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인사조직 전공 중에서도 조직행위론(Organizational Behavior)이라는 분야를 전공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행위론의 학문적 근간이 되는 심리학을 전공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에는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에서 2년여, 어세스타(舊 한국심리검사연구소)라는 심리검사 전문기관에서 다시 2년여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 몇 년 다니다 보니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동 대학교 경영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하게 되었고, 몇 년 후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박사 학위는 2012년 8월 메릴랜드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에서 조직행위론 전공으로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아주대학교에 임용되기 전까지 약 1년 반에 걸친 기간 동안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한국연구재단의 펀드로 진행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문화차를 극복한 인력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산학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영업 중인 여러 한국 기업 및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진행하는 등 경영학자로서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자로서 저는 “어떻게 효과적인 팀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천착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크게 팀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더 효과적인가 하는 팀 구성의 문제와,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업할 때 팀의 성과가 높아지는가 하는 팀 협업 과정의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연구들은 대부분 이 두 소주제와 연관되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하려 합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 가운데 특히 제 졸업논문을 한층 발전시켜 다학제 융합연구팀(multidisciplinary research teams)을 조직행위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다수의 융합연구팀을 운영 중인 국립 연구기관에서 졸업논문에 쓰일 자료를 수집하면서, 경영진과 연구팀들이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발견하는 데에 한계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융합학문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인 학문의 트렌드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팀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 학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다면 경영학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융합학문을 대학발전의 한 기조로 삼고 있는 아주대학교에 제가 오게 된 것은 천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요즘 강의실에서 밝고 성실한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 학생에 대한 애착과 함께 어떻게 학생들을 더 잘 지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강의 시에는 학생들에게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조직생활의 사례를 가급적 많이 들어줌으로써 학과목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학생들이 향후 직장 생활에 대한 일종의 준비과정을 갖게 해주는 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초짜 선생으로서, 좋은 선생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도 앞으로 평생 고민하고 배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저의 짧은 소개글을 줄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따사롭고 행복한 봄날을 즐기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자공학과 양 회 석

아직은 낯선 방에서 탁 트인 수원 시내를 내려다봅니다. ‘여기가 어디쯤일까?’, 애당초 지리에 밝지 않은 저이거니와 몇 주 전부터 시작된 모든 낯선 것들이 이 풍경에 생경함을 더해주는 요즘입니다. 몇 달 전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을까 자문해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 냈다는 성취감, 이제는 안정된 직장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안도감, 새로운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이 이제 새로운 곳에서 조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연구자/교육자로서 홀로서야하는 저를 자각하게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혼한 다짐 가운데 아주대학교에서 시작하는 제 마음가짐을 이 글에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1999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여

2003년 학사를 마치고, 동대학원에 진학하여 2010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지식인’, ‘벤처’, ‘IT 붐’ 등 당대의 키워드들이 암시하듯 창의적이고 능력 있던 친구들은 졸업하기도 전에 현장으로 나가 능력을 발휘하던 시기입니다. 시기도 시기이지만 제가 연구한 분야가 내장형 시스템의 정형적 설계 방법론, 다중프로세서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방법론, 시스템-온-칩 설계 방법론 등 삼성이나 엘지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학교보다는 산업현장에 진출했어야 하는 조건이지만 저는 매번 다른 선택을 내렸습니다. 세련되고 유행하는 기술의 습득 여부보다는 교과서에 적힌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제 자신의 부족함을 더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매번 진로의 갈림길에서 더 배

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치고도 독립된 연구자로서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에서 짧지 않은 4년 동안 박사후과정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요컨대 저의 부족함이 끊임없이 저를 배우는 자리에 남아있게 했고,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는 독립된 주체로 연구를 수행하고 가르치기까지 해야 하는 책임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큰 유관 산업의 지원을 든든히 뒤에 두고 있는 미국 대학이 아닌 유럽에서 박사후과정을 하게 된 것도 고리타분할지언정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유럽의 학풍에 매료된 바깥입니다. 박사학위 과정 동안 연구했던 부분을 수학적으로 재정립하여 시스템-온-칩의 최악 열 분석 기법 연구로 발전시켜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두었던 박사후과정 기간의 이론적 수련은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몸담고 있는 전자, 컴퓨터 분야는 대학에서도 이론만큼이나 실제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대가의 말처럼 “최고의 이론(theory)은 실제 기술(practice)로부터 영감을 받고, 최고의 기술은 이론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학생 시절에 느꼈던 기술적/이론적 부족함, 박사후과정 기간 동안 배운 이론적 사고의 유용성 등을 이제는 이곳 아주대학교에서 더 같고 닮아 한명의 독립된 연구자/교육자로 서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곳에서 선배 교수님들께서 보여주신 교육에의 열정은 벌써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이곳에서도 제 부족함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가운데 더 배우고, 더 많이 연구하며 학생들과 그리고 아주대학교와 함께 자라고 싶습니다. 흔한 말이지만 이런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지금 제가 앞으로의 제 삶의 지표로 새겨야 할 것들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팔달관 9층에서 내려다보이는 수원 시내를 바라보며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쯤 있나?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어디로 가고 있나?’

물리학과 이상운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서 학사 학위 (2003년)를 받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9년). 그 후 2010년부터 하버드대학교 화학과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번 2014년에 아주대학교 물리학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족이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적 이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인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기술적 한계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소위 나노 기술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통해 새로운 물질/소자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물질 및 소자를 나노미터 (nm, 10^{-9} m) 영역에서 컨트롤하는 연구를 해왔고 이를 통해 차세대 나노전자/에너지 소자를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레벨에서 컨트롤

물이 가능한 원자층 증착법 (Atomic Layer Deposition, ALD)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메모리 및 로직 트랜지스터와 같은 기존 전자 소자 뿐만 아니라 산화물 적층을 이용한 2-Dimensional Electron Gas (2-DEG)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나노 소자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대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소자의 하나인 박막형 태양 전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산화물을 이용한 2-DEG 소자는 전자가 산화물 계면 2차원 공간에 갇혀있는 형태로서 처음 보고된 지 불과 10년도 안 된 연구 분야로서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래핀, 나노 와이어 등의 기존 나노 분야와는 다른 신생 연구 분야로서, 흥미로운 소자 특성과 함께 희소성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에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 정말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학부 및 박사 전공이 재료공학이나 연구 분야가 물리학과에서 하는 연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미국 여러 대학 물리학과와 공동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아주대 물리학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나노물리 등의 고체물리학 분야와의 연계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아주대 물리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물리학과 재료공학의 만남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어 아주대 물리학과의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은 극도의 경쟁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 테마 및 방향에 있어서 희소성이 있고 경쟁력이 높아야 하는데, 상기와

같은 융합을 통한 접근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재의 시대, 융합의 시대를 맞아 소재 관련 융합 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제가 연구해온 나노전자/에너지 소자 연구는 넓은 연구 범위를 커버하지만 물리/재료/전자 등의 기존 분야에서 서로 기술적 유사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접근은 향후 연구 방향이 바뀔 때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수의 첫 번째 임무는 강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최신의 지식 및 기술을 전달해주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공계 학생들에게 연구 동기를 북돋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연구를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 강의를 잘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전공 분야에 관심을 충분히 가지게 하고, 대학원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들이 실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그에 대한 자긍심 및 성취감을 가지게 하고 싶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 및 진로 관련으로 고민거리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아주대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현실적인 상담을 해주고 싶고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한, 학교를 위한 교수가 되려고 합니다. 물리학을 사랑하는 일인으로서 아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의 역량을 높이는 데 일조하며 아주대와의 소중한 인연을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학과 장예빛

자랑스러운 아주 가족의 일원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리드하는 아주대학교의 <탁류청론>에 기고하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도 3월 1일자로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콘텐츠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하게 된 장예빛입니다. 저는 KAIST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문화기술학으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대학원에서 공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에서 광고홍보학을 전공하였습니다.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재학 당시, 문화산업경영정책연구실 소속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시에 KAIST 기능성게임랩 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학위취득 이후, Post-Doctoral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Social Sciences Korea, SSK)의 강원대학교 SSK 연구팀의 전임연구원으로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연구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3년, 문화 썩크 탱크인 컬처코리아워킹그룹(Culture Korea Working Group, CKWG)을 조직하여 활동 중입니다. 저의 주된 연구 관심사이자 연구 분야는 콘텐츠 마케팅,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효과연구, 콘텐츠 이용자분석, 문화콘텐츠산업 및 정책연구 및 문화를 통한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들을 SSCI, A&HCI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약 15개의 문화산업 및 정책 연구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저의 연구계획의 핵심은 콘텐츠마케팅 분야에 관한

“세계적인 수준의 독창적인 연구” 수행이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연구의 특성상, 문화라는 범주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문화콘텐츠 특성에 기반을 둔 콘텐츠 마케팅 이론을 정립함과 동시에 성공예측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모델 개발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둘째, 문화콘텐츠 효과 연구이자 이용자 연구라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소비자 행동 및 소비자 심리 연구를 통해 콘텐츠 이용 경험이라는 문화소비가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콘텐츠 효과 연구의 분석과 해석적 측면에서 인문학적인 논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및 정책연구를 통해 차세대 문화 복지 아젠다를 위한 거시적인 시각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요약해보자면, 문화콘텐츠 학과에 특화된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정립해나가며, 이론과 모델을 실증연구와 실제사례를 통해 검증하고, 나아가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문화정책 입안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연구방향과 연구의 지형도를 그려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한편, 저의 교육계획의 핵심은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이끌어갈 창의적인 문화리더인 “인플루언서(The Creative Influencers)”들을 키워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과목들의 궁극적 지향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분석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융합기반의

다학제간 참여가 가능한 문제중심학습 교과목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해당 교과목은 문화적인 아이디어로 콘텐츠나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문화를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모색해보는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형태를 지향합니다. 심화된 연구를 위해 인문대학 문화콘텐츠학과 대학원 내에 콘텐츠컨수머랩(가칭)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며, 소학회 내에서 구현 가능한

CKWG의 2.0의 운영방안을 구상중입니다. 저는 대학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도약대이자, 마음 놓고 실패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학이 가진 가장 본연의 역할인 학문적 공동체 내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식으로, 큰 뜻을 품은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는 일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환경공학과 최 권 영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4년 1학기부터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조교수로 아주대학교 가족이 된 최권영입니다. 우선 지면으로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199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화학부(현 화학생물공학부)에 입학하여, 2006년 동대학원에서 석박통합과정으로 2011년 8월 공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의 Chemical Engineering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학과의 James C. Liao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대사공학 및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테마로는 대사 공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세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대사 경로를 플럭스 시뮬레이션 및 예측하고 실험적으로 새로운 대사 경로 도입을 통해 바이오 매스로부터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를 생산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의 바이오 에너지 혹은 바이오 연료에 대한 연구는 셀룰로오스와 같은 탄소 분자 중심의 바이오 매스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제가 진행해 온 연구의 핵심은 탄소 분자 중심에서 질소 분자 순환으로 관점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많은 부분 질소를 중심으로 하는 화합물들의 경우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저의 경우 질소 분자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매스로부터 기존의 바이오 알코올류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연구의 주안점으로 두었습니다. 특히 하버-보쉬 공정 이후 인위적으로 합성된 다량의 암모니아의 경우 자연계 질소 순환에서 벗어나 환경에 그대로 축적되어 녹조류 혹은 산화질소 화합물 등과 같은 환경 오염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바이오 에너지와 암모니아의 재순환을 위한 바이오 매스로서 폐 단백질로부터의 바이오 에너지로의 생변환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연계에 존재하는 폐단백질, 예를 들면 cyanobacteria와 같은 녹조류, 가축의 배설물, 발효 공장에서 폐단백질로부터 대사공학 미생물을 통하여 C2~C5의 알코올들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cyanobacteria를 바이오 매스로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감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변환 플랫폼 군주 개발 이후 환경에서 버려지고 있는 다양한 단백질 바이오 매스나 환경 오염 물질의 에너지 변환의 목적으로 지금 함께 하게 될 아주대학교 환경 공학과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강 이후 벌써 두 주가 지났습니다. 학부 전공 강의와 대학원 전공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처음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니 떨리는 마음과 학생들을 만난다는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 학부 전공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 학부생들과 대학원 연구실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대학원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론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민 끝에 결론은 제가 많이 준비한 만큼 많은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개강 후 첫 강의 시작 전에 조금 일찍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쪽 둘러보았을 때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정의 눈빛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열정을 오래 지속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전공 공부에 지쳐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강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이제 저의 몫이라는 책임감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또한 아주대학교가 지향하는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모토로 저 스스로도 참된 지식 전달의 열정으로 강의를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이 듭니다.

많은 부분에서 아주대학교는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와 교육의 업적들이 축적되어온 전통 있는 명문 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신입 교원으로서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육자 그리고 연구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항상 가슴에 품고 학생들과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초교육대학 홍 성 연

<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

연극을 보러 가면 하나의 막이 끝나고 새로운 막이 시작되길 기다리면서 가벼운 긴장과 즐거운 설렘을 느끼곤 합니다. 어두워져 보이지 않는 무대 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애써 눈과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제 마음 역시 새로운 막이 열리기를 숨죽여 기다리는 어린 관객과 같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역사교육(석사)과 교육공학(석박사)을 전공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했던 역사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서 시작된 연구에 대한 관심은 공부를 계속하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떤 환경과 지원이 필요할까하는 의문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원격대학 학습자 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학습자 역량모형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즈음부터 서울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의 교

수학습센터에서 3년간 수업컨설팅, 영어강의지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대학의 교수-학습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 싶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거쳐 2012년부터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 연구, 실무 등을 수행하면서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지원사업, 교원양성기관평가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교육공학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와 전략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공학의 연구영역은 유치등부터 기업교육까지 다양한데 저의 주된 연구영역은 대학이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수행한 연구들은 대부분 고등교육 수월성 제고와 관련된 연구들로 효과적인 학업수행을 위한 학습자 역량 연구, 대학의 수업환경 및 교수전략 개선 연구,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환경 설계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박사학위논문을 발전시킨 'The distance learner competencies: a three-phased empir-

ical approach(원격 학습자 역량: 3단계의 실증적 접근)'은 교육공학 대표저널인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에 게재되었으며, 이후 한국연구재단의 우수논문 사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교육학자로서 저는 교육기관이 학습자들의 필요와 역량에 맞게 적절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학습자지원체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지원체제는 학습자가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체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안내, 행정적 지원 등을 기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학습자지원체제의 개념을 실현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기 위해 저는 앞으로 교육의 효과성과 질 관리, 교수자 및 학습자의 역량과 경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환경 구축 등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연구들이 새로운 교육학적 이론으로 정립되고 다시 선순환적으로 아주대학교는 물론 우리나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기를 즐거운 설렘으로 기대합니다.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상승기의 끈대와 하강기의 잉여

사회학과 노명우

다시 3월입니다. 어느 해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캠퍼스는 '새내기'라 불리는 신입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입시의 부담감에서 막 벗어난 새내기들의 분위기는 남 다릅니다. 그들에겐 명랑하고 쾌활한

기운이 넘칩니다. 막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났으니, 그럴 법도 합니다. 어찌보면 1학년의 첫 번째 학기는 대학생활 중 가장 황금기일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인한 제약에서 벗

어났다는 해방감은 커질 대로 커졌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을 엄습하고 있는 스펙 쌓기며 자기 소개서 쓰기 스트레스와 같은 압박감은 아직 찾아 오지 않은 일종의 마지막 틈새시기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들은 얼마나 좋은 시절을 경험하고 있는지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캠퍼스에서 보낸 시간이 대학생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 때서야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을 새내기라 부르던 학생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을 잉여(剩餘)라 부릅니다. 과잉된 존재라는 것이지요. 고용 없는 성장 단계에 접어든 한국 경제 구조와 달리 해마다 쏟아지는 엄청난 규모의 대학 졸업생 사이의 격차에 대한 이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쓸모 없는 존재라고 명명하며 이른바 요즘 말로 '셀프 디스'(Self-disrespect에서 유래하여 어떤 대상을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신조어)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세대, 달리 말하면 망한 세대라 규정합니다. '셀프 디스'도 모자라 '셀프 시니컬리즘'의 경지에 까지 오른 것입니다. 잉여라는 표현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잉여라는 표현에서는 긍정의 함박웃음보다는 자조적인 '썩소(썩은 미소)'가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자신을 잉여라고 규정하는 아이들로부터 '꼰대' 취급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라. 왜

세상을 허무하게 보느냐? 긍정적인 태도로 준비를 하면 돌파를 할 수 있다와 같은 말들은 스스로를 잉여라고 규정하는 아이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런 충고가 현실성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계발서를 읽기는 하지만, 자기계발서를 철썩같이 믿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잉여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자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책 내용과 상관없이 제목 하나만으로 아이들을 '힐링'했던 마법을 발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하면 된다'라든가 '내가 해 봐서 아는데'로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해봤자 자신을 잉여라고 규정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상승기에 20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점이 좋지 않아도 영어 성적이 좋지 않아도 대학만 졸업하면 누구나 무난하게 취업할 수 있었던 시기에 운 좋게 대학을 다녔던 사람은 상승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상승기가 뭔지 모릅니다. 상승기 동안 20대를 보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하강기에서 잉여처럼 떠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현재의 20대에게 늘어 놓는 충고는 이들에게는 공허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3월 캠퍼스는 아직 자신을 잉여라고 규정하지 않는 새내기들의 활발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벚꽃이 지면, 활발한 분위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 캠퍼스는 하강기를 헤매고 있는 잉여들의 소리 없는 불만으로 어느새 가득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만은 상승기의 자기 경험만을 절대화하는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듣지 못한 채 상승기의 경험만을 절대화하여 아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충고는, 이 때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허한 하나 마나 한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캠퍼스엔 상승기를 경험했던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상승기를 인생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승기와 하강기의 사람들은 각각 교수라는 지위와 학생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 시대 대학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교수들의 건강칼럼

질병인 우울증

정신과학교실 노재성

일상적인 맥빠짐, 기운 없음, 실망 등의 기분을 묶어서 말하는 우울감은 정상적일 수 있고 비정상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우울감과 우울증의 우울감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울감은 우울증을 이루는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경험하는 기분의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병을 의미하는 단어이면서 우울증은 이제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하거나 커다란 고통을 애써 숨기고 일상화 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우울감을 우울증이라 부르기도 하고 질병인 우울증을 그저 삶의 과정에 누구라고 겪는 우울감이라고 축소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우울감은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와 기간이 이해될 만한 상태입니다.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실망스럽고 우울하고 아이가 안 되어 보이고 화나는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아이 일인데도 그 일로 죽고 싶다거나 인생이 끝났다는 기분이 들거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울증의

우울감은 일상적인 슬픔, 실패에 대한 자괴감, 헤어짐에 따른 아픔,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 아쉬움 등과는 다릅니다.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에 예민해지고 고통이 지속할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상태가 우울증의 우울감입니다. 고통에는 더없이 예민해지고 기쁨에는 무감각해집니다. 고통에 대한 예민함, 현재에 대한 절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하여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죽는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울증 중에 대표적인 질환은 주요우울증입니다. 주요 우울증은 1.우울감 혹은 2. 무욕감 -만사가 재미없는 상태- 중 한 가지 증상이 있고 이와 더불어 3. 체중이나 식욕의 증가나 감소, 4. 수면의 어려움이나 반대로 지나친 수면, 5. 정신운동성 초조나 축 처지고 가라앉음 6. 피로나 에너지의 감퇴 7. 무가치감 또는 부적절한 죄책감 8. 생각, 집중하거나 결정 내리기 어려움 9. 죽음에 대한 반복적 생각이나 자살계획의 총 9개 증상 중 5개 이상이 두 주 이상 계속되면 주요 우울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주요우울증의 가장 많은 증상은 우울감이 아니라 피곤감 혹은 에너지의 감퇴 (98%)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울증인데 정신건강의학과에 바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여 통상적인 피검사등을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피곤할 수가 있나 싶으니 그다음에 선택하는 치료는 여러가지 입니다. 한의원에 가기도 하고 영양제를 먹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주요우울증이 저절로 치유되는 비율이 높은 병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병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방문하고 다시 검사하고 이상 없다는 말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시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이제는 증상이 너무 명확해져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울증을 진단할 만큼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증상은 불안감입니다(96%).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주요우울증에 걸리면 우울감보다 많은 증상이 불안감입니다. 그런데 불안감이 심한 우울증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병이어서 상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욕이 늘고 잠도 더 많이 자게 되는 형태의 우울증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우울증에서는 외부 자극에 반응성이 높은 것이 보통이며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울증이라는 항목에는 우울한 기분이 주된 질환인 감정부전증, 양극성 장애의 우울증,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은 약물치료가 원칙입니다.

약물은 지난 50년 정신건강의학의 발전에 가장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최근 20년간의 항우울제의 발전은 우울증의 치료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약물치료에 대한 편견 중 하나는 약을 장기복용하는 것이 건강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항우울제는 습관성이 생기지 않으며 중독되지도 않고 장기복용이 신체적인 이상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약을 먹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우울증의 상태가 과도한 걱정이 특징이기 때문에 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보통 6~8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이 말은 약을 먹자마자 우울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며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해열제나 진통제와 같이 먹는 즉시 증상이 호전되는 약이 아니므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증상이 호전되면 적어도 증상이 없어진 후 6개월 이상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약을 중단하면 금방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6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하고 나서는 약을 중단할 수도 있고 계속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약을 계속 먹을 수도 있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우울제가 안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울증이 재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처음 우울증을 경험한 경우라면 약을 중단해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우울증을 앓았거나 증상이 완벽히 좋아지지 않고 일부 증상이 남아있거나 우울증의 시기에 자살시도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수년간 약물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법인 면담치료도 정도의 우울증이거나 성격구조나 방어기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질병인 우울증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약물치료와 더불어 상담치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상담치료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위험 증후를 간과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쉽게 호전 가능한 질환을 만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우울감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알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방법들이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운동이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육체의 일부이므로 육체적 유능감은 스스로 만족스러운 감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 후 느끼는 성취감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약물의 효과와 독립적으로 우울감을 호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적인 우울증상이 심한 경우 운동을 할만한 에너지가 없으므로 너무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며 친밀감이 기분유지에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 본성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됩니다. 동료와의 친밀감과 그 안에서 느끼는 소속감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위안을 줍니다.

해가 들지 않는 곳을 상상하면 우울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해가 잘 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부 특정 형태의 우울증은 해가 짧아지면 악화되고 해가 길어지면

좋아지는 형태의 우울증도 있습니다. 술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반대입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술은 감정 조절에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가장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고 기형을 일으키는 물질이며 우울감을 조장하는 물질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술이 수면의 질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면제가 술보다 몸에 나쁘다고 생각해서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하려 하는 일도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외에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됩니다.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일으키느냐에 대해선 이론적인 논란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상 장면에서는 우울증이 발병하여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그래서 이전에는 잘 처리 하던 양의 일을 잘 못하게 되고 그 때문에 처리해야 할 일의 양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감소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도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며 빨리 낫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울한 기간에 사직, 이혼 등 중대한 결정을 하지 말고 병이 나은 후로 연기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면 치료를 받도록 적극 권유하고 약을 잘 복용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상에 대해 비난하지 말아야 하고 어려움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울곡관 2b3호

전화: 031)219-2240

팩스: 031)219-1b08

전자 메일: juok@ajou.ac.kr

을 충분히 들어 주지만 선부른 위로는 하지 않는 것이 대하여 예민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 하도록 권유하지만
조급하게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자살의 위험에

소식

소식

I. 2014 교수회 정기 총회 개최

지난 2월 26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원천관 대강당에서 2014교수회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총장 선임을 약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총장 선임 제도’에 대한 절차의 제도화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참석한 많은 교수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예전(2012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는 ‘총장 업무 수행 평가’의 정례화 필요성과 교수회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연구위원회’가 약 1년간 연구한 끝에 작성한 보고서 ‘연구경쟁력 증진을 위한 연구 진흥방안’의 내용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교수회 정기총회는 매 년 1차례 진행되는 교수 소통의 장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교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II. 2014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 환영회 개최

지난 3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경 법원 사거리에 위치한 신라갈비에서 교수회 주최 2014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환영회가 열렸습니다. 10명의 신입교원 중 7명의 신입교원과 교수회 의장, 총무가 참석하여 상호 인사와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회 의장과 총무는 신입교수를 환영하고, 아주대학교 교수로서의 정신과 긍지를 전하였으며, 신입교수들은 아주대학교에 부임한 소감과 포부를 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교수회에서는 앞으로도 매학기 신입교원 환영회를 개최하여 교수들과의 소통을 더욱 넓혀갈 예정입니다.

III. 연구위원회 연구비 기부

교수회 분과 위원회 중 하나인 ‘연구위원회’의 참여 연구원이 연구비를 교수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김상배 위원장(전자공학)을 비롯 윤현철(응용화학생명공학), 이기근(전자공학), 박지용(물리학), 김선교(경영학), 강주영(e-비즈니스학), 조성을(사학), 이왕휘(정치외교학)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편집위원회 : 김상배(편집책임),
구형진, 김태승, 김혜선, 노명우, 이재호